

전남 보성군의 무가 조사 연구*

임 성 래**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오구풀이 이본의 편차와 그 특징 |
| 2. 무가 조사 현황 | 5. 한양심본 오구풀이의 변용과 그 의미 |
| 3. 오구풀이 이본의 줄거리 소개 | 6. 맺는말 |

I. 머리말

전남 지역의 세습무의 전승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무당을 천시하는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세습무를 천시하는 사회적 시각 때문에 그들의 자손 대부분은 무업을 기피하고 객지에 나가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모가 무당임을 숨기고 살아간다. 이런 현실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세습무는 대가 끊기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남의 해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세습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세습무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이들의 전승 무가도 사라질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전승이 끊어지거나 사라지기 전에 이들이 구연하는 무가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066).

** 연세대학교(원주)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전남 해안지역의 세습무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다.

전남 보성군 지역은 해안 지역이면서도 농업 위주의 지역적 특징을 가진 당골판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곳이다. 그리고 전남 남해안의 양대 무계를 대표하는 진도 무계와 여수 무계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또한 해안지역인 고흥군이나 순천시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세습무들은 주변 지역의 세습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무가는 그 나름의 지역적 특징을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보성군의 무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일은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다수의 세습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3일씩 하는 큰 굿은 거의 사라지고 약식인 한나절 굿만 남아서 현실적으로 12거리 무가를 모두 채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필자는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혼맞이와 오구풀이 무가 위주로 채록했으며, 일부 제보자들에게는 좀더 넓은 범위의 무가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사 연구는 무가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전남 남해안지역 무가 수집 작업의 일환이므로 한정된 지면에서 조사된 것을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지역의 무가들 가운데 여러 오구풀이 이본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가운데 이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한양심본 오구풀이의 내용적 특징과 변용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¹⁾

2. 무가 조사 현황

그 동안 보성군의 무가는 최덕원이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있다.²⁾ 최덕원은 보성읍의 김막례(보성읍 신흥리 거주, 1986년 조사 당시 52세)의 무가 11편을

1)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조사 자료를 모두 소개하지 못한다. 이번에 조사한 자료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모두 소개하려고 한다.

2)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채록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교읍의 김교읍(추동리 거주, 1986년 조사 당시 70세)의 오구풀이 1편을 보고하였다. 또한 벌교읍의 김행연(봉림리 거주, 1986년 조사 당시 55세)의 무가 17편을 채록하여 보고하였는데, 이 17편 가운데는 <양설양구>이라는 무가를 비롯하여 <거리맞이>와 <오방풀이> 무가 등이 채록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필자는 보성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습무들 가운데 최덕원이 조사하여 보고한 세습무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보성군에 거주하는 세습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웅치면 : 임종남(남, 66세)

조성면 : 박영삼(남, 72세), 한양심(여, 68세) 부부

벌교읍 : 최철성(남, 73세), 박명례(여, 72세) 부부

벌교읍 : 노효현, 선옥례(여, 67세) 부부

벌교읍 : 조규석(남, 70세) 부부

이들 가운데 임종남과 최철성 부부는 병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무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옥례와 조규석 부부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박영삼 부부의 경우 그의 부인만이 가끔 작은 규모의 굿에 잠깐씩 참여하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자손 가운데 무업을 계승한 인물은 아무도 없다.³⁾ 따라서 이들이 활동을 중단하면 보성군의 세습무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그 가운데 무가를 온전히 채록한 것은 박영삼 한양심 부부이다. 박영삼 한양심 부부는 직접 녹음을 해서 채록했다. 선옥례는 건강이 좋지 못한 데다가 녹화한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해도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것을 거절해서 녹화한 곳에서 오구풀이를 채록했다. 임종남은 병환중이어서 직접 채록하지 못하고 임종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가집으로 조사를 대신했다. 최철성 부부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예전에 녹화한 것에서 채록했다. 조규석 부부는 채록을 거절해서 대담만 하고 무가 채록은 하지 못했다. 필자가 채록한 무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삼 한양심 부부의 무가는 1.앉은방, 2.성주풀이, 3.제석풀이, 4.큰넛풀이,

3)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식들 장래를 생각해서 얼굴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도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5.오구풀이, 6.명두풀이, 7.씻김, 8.길닦음의 8편 가운데 길닦음을 제외한 7편을 녹음하여 채록했다.4) 반주는 박영삼이 가창은 한양심이 했다.5)

임종남의 무가집은 <유경문집 壬子年 貳月>이라 표제했고, 1.왕굿 시왕탄일, 2.(굿거리)제석굿, 3.(살풀이)(덩덕궁), 4.(경문)손님굿, 5.오구굿, 6.장자굿, 7.(국거리)고풀이, 8.씻김굿이라는 제목 아래 각 굿의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각종 경문(황천해원경, 도량경, 명당경, 천룡경)과 <별회심곡>이 실려 있다. 이 무가집에는 곳곳에 장단을 표시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선옥례의 오구풀이는 녹화한 굿에서 채록했다. 이 굿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본인들이 실제의 굿을 재현하기 위해서 녹화한 것이다. 이 굿에는 여러 인물이 각각 자신이 맡은 거리에 출연하고 있어서 각 거리마다 출연하는 인물이 다르다. 선옥례는 이 굿에서 오구풀이에 참여하였다.

최철성의 무가는 녹화한 것에서 채록했다. 이것은 굿의 전과정을 녹화한 것이 아니고 오구풀이까지만 녹화했다. 이 굿에서 최철성은 악사로 참여하고 그의 부인인 박명례는 앞부분의 제석굿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를 채록했다.

4) 녹음과정에는 필자와 오태권(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양명모(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최용신(연세대 국문과 4학년)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조성운 교수(제주대 사회학과)가 참관했다.

5) 녹음이 끝나고 박영삼이 각 과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앉은방은 가족을 위한 축원이며, 성주풀이는 성주가 걸려 있어서 그 걸린 고를 푼다고 했다. 제석은 복을 받기 위한 재수굿이고, 큰넋은 앞서간(先亡) 부모님을 위해서 영혼을 달래는 굿이라 했다. 오구는 저승에서 하는 것을 이승에서 반복하는 것이라 했다. 명두는 죽은 신들린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신이 들어서 잘 알기 때문에 고를 풀어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했다. 씻김은 죽어나갈 때 죄를 싹 씻고 저승을 잘 가도록 하는 굿이며, 길닦음은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길을 잘 닦아서 잘 가시라는 뜻으로 하는 굿이라고 했다.

총 12거리 굿 가운데 길닦음 등 일부를 마무리하지 않고 이 일곱 거리로 끝을 냈다. 한양심은 연로해서 피곤한 데다가 최근에 큰굿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끝을 냈다면서, 젊었을 때 했더라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끝맺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3. 오구풀이 이본의 줄거리 소개

여기서는 필자가 채록한 무가 가운데 오구풀이 3편과 최덕원이 채록한 오구풀이 3편의 내용을 소개하여 이들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살피기 위한 자료로 삼겠다. 여기서는 편의상 먼저 오구풀이의 공통 줄거리를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이본의 내용을 소개하여 그 차이점을 해당 단락에서 쉽게 비교하여 파악하도록 하겠다. 소개의 순서는 편의상 ①한양심, ②임종남, ③선옥례, ④김막례, ⑤김고분, ⑥김행연의 무가 순으로 하되 원문자 ①은 한양심의 무가, ②는 임종남의 무가, ③은 선옥례의 무가, ④는 김막례의 무가, ⑤는 김고분의 무가, ⑥은 김행연의 무가를 약칭하여 번호로 표기하기로 한다.

1. 오구시왕과 오구부인의 본, 두 사람의 결혼을 소개한다.

① 시왕산 큰바우 밭. 오구대왕은 한두 살에 절을 세우고, 7,8세에는 소학 대학을 보고, 15세에는 반궁에 올라 이 나라를 다스린다. 칠대부인의 딸아기가 인물이 출중하고 행실도 단정하여 세 번 칭하여 삼짓날에 혼인한다.

② 본의 소개는 없다. 오구님과 국태부인은 동갑으로 17세에 사월 초파일에 혼인한다.

③ 명산 대천. 오구대왕은 하나를 이르면 셋을 알고, 세 살에 대왕이 되어 서책을 끼고 스승에게 배우니 도통하여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하늘을 다스린다. 13세에 삼월 삼짓날 황후부인과 혼인한다.

④ 시영산 그늘밭. 오구세왕은 천상사람, 오구부인은 제화사람, 17세, 15세에 혼인한다.

⑤ 큰바구밭. 오구시왕은 15세 오구부인은 19세에 중매쟁이가 세 번만에 허락을 얻어 혼인한다.

⑥ 세왕산 큰바구밭. 오구시왕은 18세, 오구부인은 17세에 양인 부모의 허락으로 혼인한다.

2. 딸 여섯을 낳는다.

① 첫째딸 낳는 과정은 자세하게 둘째- 여섯째는 간략하게 설명한다. 넷째는 누락되었다.

② 첫째, 둘째도 딸이다. 셋째-여섯째는 없다.

③ 첫째딸 낳는 과정은 자세하게 둘째는 간략하게, 셋째-여섯째는 딸이라고만 설명한다.

④ 첫째 딸 낳는 과정은 자세하게, 둘째-여섯째는 간략하게 설명한다.

⑤ 첫째 딸부터 여섯째까지 낳는 과정을 자세하게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⑥ 혼인 후 3년만에, 첫째딸을 낳는 과정은 자세하게, 둘째-여섯째는 간략하게 설명한다.

3. 아들을 낳으려고 명산대천에 빌었으나 일곱째도 딸이었다.

① 시주님의 권고로 황후가 청하여 명산대천에 빌었더니 선몽에 학 한 쌍과 청룡 황룡 기린이 보인다. 그러나 일곱째도 공주였다.

② 국태부인이 갖가지 공을 드렸는데, 일곱째도 딸이었다(천상선녀가 내려와 아이를 받고 천도 복숭아를 젖에다 갈아먹이고 선녀는 서기 타고 안기생은 난초 타고 올라간 후에 국태부인이 뒤를 살펴보니 또 딸이었다).

③ 오구대왕의 요청으로 황후부인이 명산대천에 빌었더니 태몽에 학 한 쌍과 청룡 한 쌍, 기린이 치마폭에 드는 꿈을 꿴으나 일곱째도 딸이었다.

④ 오구세왕이 석달 열흘 산제 불공을 제안하여 오구부인이 명산대천에 백일기도를 드리니 전과는 다른 징조를 보였으나 일곱째도 딸이었다.

⑤ 오구시왕의 제안으로 석달 열흘 갖가지 공을 드렸더니 달이 들고 월광제석이 입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나 일곱째도 딸이었다.

⑥ 시왕님이 공부자 같은 현인도 이구산천에 빌었으니 우리들도 명산대천에 공들이자 제안하여 공을 드렸으나 일곱째도 딸이었다.

4. 딸이라고 쑥대밭에 버리자 학이 내려와 키운다.

① 쑥대밭에 버리자 학 한 쌍과 청룡 황룡이 내려와서 추울새라 한 날개는 깔아주고 한 날개는 덮어준다. 청룡은 골골마다 다니면서 젖줄을 물어와 바리

데기 입에 물려주니 일취월장한다.

② 겨울이면 얼어죽으라고 삼베치마 삼베저고리를 입혀 음지에, 여름이면 더워죽으라고 쭉덕치마 쭉덕저고리를 입혀 양지에 뉘여 놓아도 죽지 않는다. 정이 없다고 무주공산에 버리자 학이 한 쌍 내려와 한 날개는 깔고 한 날개는 덮고 먹이를 주며 기른다.

③ 여름에는 더워죽으라고 양지에 뉘여 놓고 겨울에는 얼어죽으라고 음지에 내들려서 쭉대밭에 버린다.

④ 버린 후에 궁금해서 가서 살펴보니 천사가 내려와 한 날개는 깔고 한 날개는 덮고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데려온다. 정이 들지 않아서 여름에는 더워죽으라고 두덕바지에 싸서 양지에, 겨울에는 얼어죽으라고 마포잠방이 입혀 음지에 두어도 죽지 않아서 다시 내던진다.

⑤ 오동나무에 넣어 용모강에 버리자 용왕이 거북을 시켜 선창가에 두게 한다. 학이 한 쌍 내려와서 두 입으로 물고 왕대밭에 눕혀놓고 암놈은 한 날개로 깔고 한 날개로 덮어준다. 수놈은 먹을 것을 물어다 삼칠일을 먹인다. 동네 아낙들이 흉을 보자 오구시왕이 부끄러워서 다시 데려와 오뉴월 삼복에는 데어죽으라고 솜으로 포닥치마 저고리를, 엄동에는 얼어죽으라고 삼베웃을 입혀도 잘 자라고, 빠저죽으라고 못 속의 초당에 두어도 잘 자란다.

⑥ 여름에는 데어죽으라고 양지에, 겨울에는 얼어죽으라고 음지에 두어도 하늘이 도운 자손이라 안 죽는다. 쭉대밭에 버리자 학이 한 쌍 내려와 한 날개는 깔고 한 날개는 덮고 학의 젖을 먹여 키운다.

5. 오구시왕이 딸 일곱을 낳고 심화로 병들어 죽으려 한다.

① 오구대왕이 병이 들어 죽으려 한다.

② 바리데기 15세 때 오구시왕은 딸 일곱을 낳고 심화로 병이 나서 죽게 된다.

③ 오구대왕이 심화로 병이 나서 죽으려고 한다.

④ 오구세왕이 죽으려 한다.

⑤ 바리데기 15세 때 오구시왕이 병들어 죽게 된다.

⑥ 오구시왕은 딸 일곱을 낳고 심화로 병들어 죽게 된다.

6. 도사가 시왕산 약물만이 오구시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① 시주님이 시왕산 큰바위 밑의 천년수 만년수로 고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② 육관부처가 수양산 약물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한다.
- ③ 시주가 시왕산의 약물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 ④ 문복하니, 저승문이 열렸다면서 세천세국 들어가서 바위 밑의 약물을 길러다 먹이면 인도환생하리라 한다.
- ⑤ 도사가 시왕산 약물을 길러 먹이면 만병회춘하리라 한다.
- ⑥ 도사에게 시주 삼백석을 약속하고 시왕산 큰바위 밑에 불사약물이 있음을 안다.

7. 오구부인이 딸 여섯에게 시왕산에 가서 약물을 길어오라고 했으나 거절한다.

- ① 일공주는 이 나라 공주로 시왕산이 어디라고 갔다오겠느냐 다른 공주를 보내라 하고, 이공주는 언니가 못간 데를 어찌 가며, 길과 산을 몰라 못 가겠다 하고, 나머지 공주들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한다.
- ② 첫째딸은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둘째는 수양산이 어디라고 가겠느냐, 셋째는 흉악한 산을 넘고 골은 깊어 첩첩하여 장정호걸 남자라도 어려운 데 어찌 가겠느냐, 넷째는 나이 들면 동네 출입도 어렵다는데 일개 여자가 수양산을 어찌 가겠느냐, 다섯째는 형님들이 못 가는 데를 어찌 가겠느냐, 여섯째는 언니들과 똑 같이 대답하며 거절한다.
- ③ 딸 여섯이 모두 거절한다.
- ④ 첫째딸은 세천세국이 어디라고 가겠느냐, 둘째는 언니가 못 가는 길을 어찌 가겠느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그 말로 거절한다.
- ⑤ 첫째딸은 일개 여자로서 시왕산이 어디라고 가겠느냐, 이공녀 삼공녀 사공녀도 일구여출로, 육공녀는 언니도 못간 곳을 어찌 가겠느냐 하며 거절한다.
- ⑥ 일공주는 양반의 딸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초당 안에서 글 공부에 힘을 써야지 시왕산이 어디라고 가겠느냐면서 거절하고, 나머지 다섯도

언니 못 간 길을 어찌 가겠느냐면서 거절한다.

8. 오구부인이 바리데기를 찾아가 부탁하자 수락하고 길을 떠난다.

① 시녀가 바리데기를 찾아가자 바리데기는 산신을 따라 천자문을 읽고 있었다. 사정을 들은 바리데기는 탄생 공을 갓졌다고 따라오니 황후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긴다. 바리데기는 길을 떠난다.

② 오구부인이 바리데기를 찾아가 부탁하자 수락하고 언니들의 옷을 빌려 입고, 신발을 얻어 신고 수양산으로 향한다.

③ 시녀가 바리데기를 찾아와 부탁하자 바리데기가 시녀를 따라가니 황후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긴다. 바리데기가 허락하고 언니들의 옷과 신을 빌려 신고 길을 떠난다.

④ ⑤ 바리데기를 찾아가 부탁하자 수락하고 길을 떠난다.

⑥ 바리데기를 찾아가 부탁하자 거절했다가 수락하고 길을 떠난다.

9. 시왕산에서 산신과 3년, 길신과 3년, 용신과 3년을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고 약물을 구해 돌아온다.

① 바리데기가 선비와 기린의 안내로 시왕산에 이르니, 신들이 산값, 길값, 물값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9년을 살라고 한다. 그들이 시중드는 것을 지켜 보고 3일만에 정성이 지극하다면서 약물을 알려준다. 산신과 용신이 환생초, 소생초, 인생초를 주면서 “언니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자손으론 풍진손님 유두손님 수두손님 종두손님 홍역손님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하고, 너는 지체도 너와 같고 행실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데로 백년기약을 맺어달라고 이르고, 한 텃줄에 아들 열을 낳아서 열제왕을 봉해주고 동서남북에 방을 붙여 붙쌍하고 가련한 젊은 청춘에 죽고 늙은 망년에 간 망자, 억울하게 가고 원통하게 가고 분하게 가고 서럽게 간 망자들을 불러 오구문을 열어주고 호천문을 열어주고 시왕문을 열어주고 십이왕문을 열어서 인도환생길을 열어달라고 일러라” 한다.

② 수양산에 가서 약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일월선관이 길값, 약값, 물값 3년씩

9년을 살고 가라고 해서 9년을 살고 아들 9형제를 낳아 앞세우고 나온다.

③ 바리데기가 선비와 기린의 안내로 수양산을 찾아가니 물값 3년, 길값 3년, 산값 3년씩 9년을 살고 가라 한다. 바리데기가 9년을 살면 부친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고 하며 사정하니 묵묵부답하다가 정성이 지극하다면서 9일만에 약물과 환생초를 쥐서 가지고 나온다.

④ 산신과 산값 3년, 길신과 길값 3년, 용왕과 물값 3년, 석삼년을 살고 약물을 구한다.

⑤ 길신과 길값 3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고, 산신과 산값 3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고 시양산에 당도하여 용왕과 물값 3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아 9년만에 약물을 길러온다.

⑥ 산신이 3년, 길신이 3년, 물신이 3년을 살고 가라고 한다. 바리데기가 9년을 살고 가면 부친은 죽어서 뺨골만 남겠다고 통곡하자, 여기 1년은 하루고, 2년은 이틀, 3년은 사흘이라 해서 석삼년을 살고 물을 길고 환생초 세 송이를 꺾어 돌아온다.

10. 바리데기가 불사약물을 길어오는 도중에 목동의 노래를 듣는다.

① 바리데기가 목동이 부르는 노래(오구시왕이 태자 하나를 못 두고 죽었으며 약물을 길러간 바리데기는 소식이 없다는 내용)를 듣는다.

② ④ 없다.

③ 바리데기가 목동이 부르는 노래(오구대왕이 죽은 지 9일이 되었는데, 바리데기는 소식이 없다는 내용)를 듣는다.

⑤ 약물을 길러오는 도중에 건너 앞산에서 15세의 도령이 노래(바리데기는 한발 늦어 부친을 못 볼 것이니 재촉하라는 내용)를 부른다.

⑥ 목동이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노래(바리데기가 약물 길러 갔는데, 부친이 죽어도 안 온다는 내용)하는 것을 듣고 다시 부르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한다.

11. 바리데기가 상구 행차를 멈추라고 하자 언니들이 꾸짖는다.

① 상구를 멈추라고 하자 언니들은 당돌하다고 꾸짖고, 나이든 법관은 잠깐

쉬어가자 한다.

② ③ 없다.

④ 상구를 멈추라고 하자 여섯 딸이 꾸짖는다. 나이 많고 점잖은 상부 한 명이 바리데기의 요구를 들어준다.

⑤ 상구 멈추기를 청하자 언니들이 꾸중하면서 매를 때린다. 바리데기가 매를 맞으면서 상부체를 휘어잡아 멈춘다.

⑥ 바리데기가 상구 멈추기를 청하자 언니들이 꾸짖는다.

12. 바리데기가 불사약물로 오구대왕을 살린다.

① 바리데기가 환생화, 소생초, 인생초, 약물로 부친을 살린다.

② 바리데기가 삼세번 씻기자 오구시왕이 잠잔 듯이 일어난다.

③ ⑥ 바리데기가 약물과 환생초로 오구대왕을 살린다.

④ ⑤ 바리데기가 불사약물로 오구시왕을 살린다.

13. 살아난 오구시왕이 바리데기와 그녀의 자손을 축복한다.

① 살아난 오구대왕이 바리데기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망자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언니들은 손님으로 귀양을 보내고 자신은 지체와 행실이 자신과 같은 인물로 혼인을 시켜달라 한다.

② 아들 아홉을 낳았다고 죄를 청하자 외손봉사하자면서 각 아들을 왕으로 봉한다.

③ 오구대왕에게 바리데기는 불쌍한 망자를 위해 오구문, 시왕문이나 열어주고 천도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라 한다.

④ 바리데기가 사죄하며 부친의 제안을 거절하고 천상부부를 맺어 외손발복이 소원이라 한다. 그 소원대로 천상부부를 맺어 아들 7형제를 둔다. 첫아들은 진광대왕, 둘째는 초강대왕, 셋째는 승제대왕, 넷째는 오관대왕, 다섯째는 염라대왕, 여섯째는 변성대왕, 일곱째는 일곱 칠성으로 벼슬을 주어 단명자는 명을 주고 복 없는 자는 복을 주고 자손 없는 자는 자손을 태워주게 한다.

⑤ 바리데기가 아들 3형제를 낳았다고 잘못을 빌자 자신보다 좋은 딸자라고

하면서 외손봉사를 하자 한다. 이어서 큰아들은 전라감사, 둘째는 평양감사, 셋째는 통영통기사로 봉한다.

⑥ 오구시왕이 친하, 국사를 주겠다고 하자 바리데기가 부모의 은공을 갚았으니 만족한다고 한다.

14. 오구시왕이 언니들을 징계한다.

① 오구대왕이 동서남북중앙 법관을 불러 바리데기의 요구를 들어준다(언니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② ③ ④ ⑤ ⑥ 없다.

15. 바리데기는 무신이 된다.

① 그때부터 오구궁, 시왕궁이 나오고, 바리데기는 아들 열을 낳아서 열제왕으로 봉하고 그때부터 축원법이 나왔다.

② ③ ④ ⑤ 없다.

⑥ 바리데기가 혼인하여 아들 10형제를 낳고, 그들을 각각 일제왕-십제왕으로 봉한다.

16. 그 후의 사설

① 오구시왕은 바리데기가 살렸건만 명이 짧은 망자들은 명줄을 당겨주고 복줄, 자손줄이나 당겨주자고 하며, 망자들은 염불을 타고 극락을 가도록 염불하자 한다.

② 바리데기는 세천세국에 들어가서 불사약을 구해다 죽었던 부모를 살렸건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가 살릴손가 ○○○씨 가문의 망자님은 불쌍하게 가셨구나 극락을 가도록 염불하자 한다.

③ 망자들 극락 가라고 이런 지극 정성을 드린다.

④ 옛날 오구시왕은 딸 일곱을 낳고 심화로 죽었다가 바리데기가 살렸는데, 불쌍하신 망자씨는 명이 짧아서 가셨는가 약이 없어서 가셨는가 명줄이나 당겨주자고 하고, 염불하고, 왕생극락을 가자면서 마무리한다.

⑤ ⑥ 오구시왕님이 두 세상을 살고 세 세상을 살다 갔으니 명줄 복줄이나 당겨보자면서 끝맺는다.

4. 오구풀이 이본의 편차와 그 특징

주지하듯이 오구풀이는 일곱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은 공주가 악물을 길어와서 죽은 부친을 살리고 오구신이 된 이야기이다. 이 오구풀이가 불리는 곳이 오구굿인데, 이 굿의 목적은 바리데기가 시왕산에 가서 불사악물을 길러와 죽은 부친을 살렸듯이 망자가 저승길을 잘 가서 극락에서 환생하기를 염원하는데 있다.⁶⁾ 그러므로 보성군 지역에서 채록된 오구풀이의 내용도 대체로 이러한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그 가운데 한양심본의 오구풀이에는 세부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오구풀이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다. 따라서 보성군의 오구풀이를 각 이본간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되 한양심의 오구풀이를 중심으로 그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구풀이의 시작은 단락 1에서 보듯이 대체로 오구시왕⁷⁾의 본과 결혼 과정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본은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한양심본과 선옥례본은 오구시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이본과 조금 다르다. 곧 한양심본은 오구대왕이 한두 살에 절을 세우고, 칠팔 세에는 소학 대학을 읽고, 15세에는 반궁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다. 선옥례본에도 하나를 이르면 셋을 알고 세 살에 왕위에 올라 서책을 끼고 글을 배우며 하늘을 다스린다고 했다. 한양심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다른 이본이나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 채록된 오구풀이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가창자가 오구시왕의 출중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태몽의 내용은 한양심본과 선옥례본이 유사하고 다른 이본은 이와 다르다.

6) 오구굿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는 즐고, 「나로도도의 무가 연구」(『남도문화연구』 제2집,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86.)의 ‘오구풀이의 무속적 기능’ 부분과 이정엽의 「오구굿 무가의 구조와 기능」(『한국언어문학』 제40집, 1998.)을 참고할 것.

7) 이본에 따라 오구시왕을 오구대왕이나 오구세왕으로 부르나 이 글에서는 이본의 내용을 소개하는 단락 부분을 제외하고 오구시왕으로 통일하여 쓴다.

다른 이본에서는 선몽이 있다거나 전과는 징조가 다르다고만 했다. 그런데 한양심본과 선옥례본에서는 학 한 쌍과 청룡, 황룡, 기린이 보이는 태몽이 나온다. 이 태몽에 등장하는 학과 용은 바리데기가 버림을 받았을 때 그녀를 보호하고 젖을 구해 먹이는 존재로, 기린은 시왕산을 안내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바리데기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태몽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이들의 등장과 역할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단락에서 태몽은 아니지만 임종남본에는 오구부인이 바리데기를 낳자 천상에서 선녀와 선관이 내려와 아이를 씻기고 천도복숭아를 젖에 갈아 먹이는 내용이 나오는 점이 특이하다.⁸⁾

단락 4의 일곱째 딸을 버리는 과정이 이본에 따라 서로 다르다. 한양심본은 오구대왕의 명으로 일곱째 딸을 쑥대밭에 버리자 학이 한 쌍 내려오고 청룡 황룡이 내려와서 학은 바리데기를 보호하고 청룡이 꿀꿀이 다니면서 젖줄을 물어다가 먹이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임종남본은 데리고 살면서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아서 무주공산에 버렸더니 학이 한 쌍 내려와 보호하며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옥례본은 죽으라고 여름에는 양지에 겨울에는 음지에 두었으나 죽지 않아서 쑥대밭에 버린다. 김막례본은 딸이라 버렸지만, 천사가 내려와 양육하는 것을 보고 데려왔으나 죽지 않고 정도 들지 않아서 다시 버린다. 김고본본은 용모강에 버렸더니 거북이 구해서 선창가에 두자 학이 한 쌍 내려와 한 놈은 보호하고 한 놈은 먹을 것을 물어주었는데, 동네 아낙들이 흉을 보자 오구시왕이 부끄러워서 데려와서 죽이려 하였으나 초당에서 잘 자란다. 김행연본에서는 정이 없어서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아서 쑥대밭에 버렸더니 학이 한 쌍 내려와 보호하고 학의 젖을 먹여 키운다. 이처럼 이본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한양심본은 학뿐만 아니라 청룡 황룡이 등장해서 바리데기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학과 용이 태몽에 나타난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이본과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다른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이본의 독특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락 8의 불사약물을 구하러 갈 사람이 없어서 바리데기에게 부탁을 하는 장

8) 이것은 <유충열전>에서 유충열이 탄생했을 때 선녀가 나타나 약물로 아이를 씻기고 천도를 먹이는 장면과 유사하다.

면에서 한양심본과 선옥례본은 다른 이본들과 차이를 보인다. 다른 이본들은 오구부인이 바리데기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 데 비해 한양심본과 선옥례본에서는 황후부인이 직접 바리데기를 찾아가지 않고 시녀를 보내서 바리데기를 찾아오게 한다. 또한 그 장면에서 한양심본에는 시녀가 찾아갔을 때 바리데기가 산신의 가르침을 따라 천자문을 읽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 천자문을 읽는 방법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흔히 창으로 하는 <천자뒤풀이>와는 달리 전통적 낭송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도 <천자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⁹⁾ 판소리와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본에는 없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 것은 바리데기의 유식함을 드러내려는 가창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단락 9의 불사약물의 대가를 치르는 기간에서 한양심본과 선옥례본, 김행연본은 다른 이본과 차이를 보인다. 임종남본과 김막례본, 김고본본에서 바리데기는 불사약물을 얻기 위하여 산신과 3년, 길신과 3년, 물신과 3년, 모두 9년을 살아주고 불사약물을 얻으며, 이들과 사는 동안에 임종남본은 아들 9형제를, 김막례, 김고본본에서는 아들 3형제를 낳아서 데리고 나온다. 한양심본은 신들이 산신과 3년, 길신과 3년, 물신과 3년을 살아야 한다고 했으나 바리데기는 하늘이 낳은 효녀라 삼일만에 불사약물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른 본에 등장하는 아들 3형제도 등장하지 않는다. 선옥례본과 김행연본은 바리데기가 9년을 살고 가면 부친은 죽어서 뺨골만 남겠다고 통곡하자 선옥례본은 9일만에 약물과 환생초를 주고, 김행연본은 그곳은 1년이 하루라고 하여 역시 9일만에 불사약물을 구해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오구시왕이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9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바리데기가 약물을 길러와서 죽은 오구시왕을 살린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창자가 현실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3일이나 9일로 내용을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락 13-15는 이본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대목이다. 먼저 다른 이본들과 달리 한양심본은 언니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까지 채록된 오구풀이에

9) 가창자는 낭독조로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루 황 집 우 집 주 넓을 흥 거칠 황”까지 읽는다.

는 언니들이 징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고, 언니들을 징계하더라도 오구시왕이 직접 불효를 이유로 들어서 여섯 딸을 징계한다.¹⁰⁾ 그런데 한양심본에서는 언니들의 징계 과정이 오구시왕이 딸들을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왕산의 신들이 바리데기에게 언니들을 징계하도록 부친에게 요구하라고 권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곧 신들은 바리데기가 약물을 길러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에게 부친이 소생하면 부친에게 곱게 기른 언니들이 불효를 저질렀으니 풍진손님, 유두손님, 수두손님, 종두손님 홍역손님 등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하고, 그녀는 지체와 행실, 인물이 그녀와 같은 데로 백년가약을 맺어달라고 해서 한 텃줄에 아들 열을 낳아서 열제왕을 봉해달라고 하고, 사방의 불쌍한 망자의 혼을 불러 인도환생길을 찾아주는 신이 되라고 한다. 그에 따라 바리데기는 부친을 살린 후에 부친에게 그 말대로 부탁하여 언니들을 각종 병으로 귀양보내고, 아들 10형제를 낳아 각각 왕으로 봉하고 자신은 오구신이 된다. 임종남본은 아들 아홉을 각각 왕으로 봉하며, 김막례본은 아들 일곱을 왕으로 봉한다. 김고분본은 아들 삼형제를 전라감사, 평양감사, 통영통기사로 봉하는데, 이것은 다른 오구풀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이다. 김행연본은 아들 십형제를 낳아 각각 왕으로 봉한다. 선옥례본은 이런 내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단락 16은 불쌍한 망자들을 위해 명줄, 복줄, 자손줄을 당겨주고 극락을 가도록 염불을 해주자는 내용인데, 모든 이본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 한양심본 오구풀이의 변용과 그 의미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들은 대부분 세습무들이다. 이들은 당꿀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무업을 세습하면서 활동했던 무당들이거나 그들의 후예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굿은 세습의 속성이 강한 전통성을 갖는다.

10) 오구풀이 가운데 언니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는 고흡군에서 채록한 김한심본이 있다. 줄고, 앞의 글, 참조.

또한 그들의 고향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의 고향이 강신무의 고향이 가진 신성성의 측면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을 웃기고 울리는 유흥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전남의 무가는 당골판을 중심으로 한 세습적 전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향을 구경하는 그 지역 청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용이 일어나거나 흥미를 고조시키는 요소들이 첨가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양심본 오구풀이에는 여러 곳에서 가창자의 윤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양심본 오구풀이에는 지역민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세습무굿이 갖는 유흥의 속성 때문에 생겨난 변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녀의 오구풀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녀의 오구풀이에는 여러 곳에서 윤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필자가 크게 주목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주인공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드러내기 위해 윤색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둘째는 사건 전개 of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윤색된 대목이고, 셋째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윤색 부분이다.

먼저 주인공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윤색 부분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바리데기의 비범성은 단락 1에서 이미 오구시왕의 비범성을 드러낸 것에서 그 전조를 엿볼 수 있다. 오구시왕은 한두 살에 절을 세우고, 칠팔 세에 소학 대학을 읽으며, 15세에는 반궁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비범한 존재로 설정된다. 그녀의 모친도 인물이 출중하고 행실도 단정한 인물로 설정된다. 뿐만 아니라 단락 3에서 보듯이 그녀를 임신할 때 학 한 쌍과 청룡, 황룡, 기린이 보이는 태몽이 있었다.

이처럼 바리데기 부모를 비범하고 단정한 인물로 설정한 것은 바리데기의 혈통적 비범성을 보여주려는 가창자의 의도적 윤색으로 읽힌다. 가창자는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혈통적인 면뿐만 아니라 하늘이 예비한 것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태몽을 활용하고 있다. 오구부인이 온갖 공을 드린 후에 꿈을 꾸는데, 꿈에 학 한 쌍과 청룡, 황룡, 기린이 나타난다. 이 꿈에 나타난 학과 용은 그녀가

버림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이고, 기린은 그녀가 시왕산을 찾아가는 도중에 나타나서 시왕산을 안내해주는 존재이다. 이처럼 태몽에 천상적 존재를 등장시키고, 천상적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보호하고, 시왕산을 찾아가는 길에 나타나 길을 인도하는 내용을 설정한 것은 바리데기는 하늘이 돌보는 비범한 존재임을 가창자가 청중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가창자는 왜 청중들에게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왕산’과 ‘불사약물(환생초)’, ‘망자 환생’, ‘오구신’이라는 단어들과 바리데기의 관련 아래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왕산’은 저승 세계에 있는 산 이름으로, 무계에서는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왕산을 찾아가서 불사약물을 구해오려면 지상세계에 사는 인간적 존재로는 불가능하므로 그 신분이 천상적 존재여야 한다. 바리데기를 천상세계와 관련된 비범한 존재, 곧 천상적 존재로 설정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리데기가 시왕산에 가서 불사약물(환생초)을 구해서 죽은 부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윤리적 효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된 오구신이라는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바리데기의 저승과 이승의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결국 오구신인 바리데기가 망자를 저승에서 환생시킬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천상적 존재, 곧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임을 확신시켜서 망자의 극락 환생을 염원하는 청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런 설정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윤색된 대목에서 필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은 바리데기를 유식자로 설정한 부분이다. 오구시왕을 살리기 위하여 바리데기에게 불사약물을 길어오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시너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산신을 따라 천자문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오구대왕이 7,8세에 소학 대학을 읽는다거나 15세에 반궁(泮宮)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학에서 천자문은 글자를 익히는 기본서이고, 소학과 대학은 글공부가 진전되면서 배우는 유학의 대표적인 교과서이다. 특히 재미있는 대목은 오구대왕이 반궁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 곳이

다. 주지하듯이 반궁은 학교의 다른 이름이다. 왕이 학교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반궁’이 아니라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야 맞다. 그런데 가창자는 ‘왕위’ 대신에 ‘반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녀는 반궁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녀가 유교적 문화에 젖어 살면서 무렵에 종사했음을 뜻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위에서 살핀 한양심본 오구풀이의 변용 내용에는 그 지역의 유교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양심본이 사전 전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줄거리의 내용을 변용시키고 있는 대목을 살펴본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데기가 불사약물을 구해서 돌아오는 기간이다. 많은 이본에서 바리데기는 불사약물을 구하기 위해 산신, 길신, 물신과 각각 3년씩 9년을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은 후에 약물을 가지고 돌아와 부친을 살린다. 이에 비해 한양심본은 세 신들이 그녀의 지극한 정성을 보고 3일만에 불사약물을 주어서 바리데기가 곧 돌아와서 약물로 죽은 부친을 살리는 내용으로 변용되어 있다. 오구시왕이 심화로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 세상에는 그를 살릴 약이 없는 상황에서, 곧 죽을 날이 오늘내일 하는 상황에서 바리데기가 시왕산을 찾아가서 9년만에 불사약물을 구해와서 죽은 부친을 살리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3일만에 불사약물을 구해와서 이제 막 죽어 상여가 나가는 부친을 살리는 것으로 변용시켰을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청중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곧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가창자의 의도 때문에 일어난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리데기가 세 신들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지 않고 부친을 살린 후에 부친의 주선으로 혼인하여 아들 10형제를 낳는 내용으로 윤색이 이루어진 점이다. 한양심본 오구풀이에는 바리데기가 부친을 살릴 약물을 구하기 위해 시왕산을 찾아가서 아들 3형제를 낳지 않고 부친을 살린 후 부친이 정해준 배필과 혼인하여 아들 10형제를 낳는다. 이러한 내용의 변용은 남녀의 혼인은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했던 당시의 유교적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리데기가 처녀의 몸으로 세 명의 남자들과 야합하여 성이 다른 아들 3형제를 낳는 것이 당시의 유교 윤리에 벗어나는 것

이라는 판단 때문에 가창자가 이런 식으로 윤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한양심본 오구풀이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의 변용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양심본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불효를 저지른 언니들을 징계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보성군의 오구풀이에서는 한양심본에만 등장하는 내용으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언니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존재가 세 신들이라는 점에서 오구시왕이나 바리데기는 혈족을 징계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혈족을 징계하도록 요청하는 바리데기의 비윤리성을 불식시키고, 언니들의 불효를 강조하여 그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의 줄거리 설정은 결국 바리데기의 도덕성을 높이고, 그녀의 행동은 선업을 위한 것, 곧 선행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인간에게 온갖 고난을 일으키는 질병들, 곧 풍진, 유두, 수두, 종두, 홍역 등과 같은 질병들은 못된 언니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언니들을 미워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라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점들을 고려할 때 한양심본의 오구풀이는 그 지역의 문화적 영향 때문에 내용의 변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청중들의 요구를 여러 면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변용이 일어나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결국 국 곳의 신성성보다는 흥미성을 중시하는, 곧 청중의 요구를 곳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세습무곳이 가진 특성 때문에 생긴 변용 현상으로 보인다.

6. 맺는말

지금까지 이 글은 전남 보성군에서 조사한 무가 가운데 오구풀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보성군에서 채록된 오구풀이는 모두 여섯인데, 이를 간략히 비교한 결과 한양심본을 제외한 다수는 부분적으로 약간씩 다른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줄거리가 유사하였다. 한양심본은 가창자가 의도

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변용시켰기에, 그 변용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양십본에서 변용이 일어난 내용은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드러낸 것과 내용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것으로 요약된다. 바리데기의 비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창자는 바리데기의 부모를 비범한 인물로 설정하고, 태몽에 천상적 존재를 등장시켰으며, 천상적 존재가 바리데기를 양육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바리데기의 천자문 읽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유식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왕산을 찾아갈 때 천상적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인도하고, 신들이 그녀의 효성에 탄복하여 불사약물을 3일만에 주어서 부친을 살리게 했다. 이것은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변용이자 청중들에게 그녀의 망자 환생인도의 능력을 확신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변용일 것이다.

한양십본은 바리데기가 산신과 3년, 길신과 3년, 물신과 3년, 모두 9년을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은 후에 불사약물을 길어와 부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3일만에 불사약물을 길어와 부친을 살리는 것으로 내용의 변용이 일어났다. 이것은 부친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9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 가창자가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3일만에 돌아와 부친을 살리는 것으로 변용시켰을 것이다. 또한 이 대목에서 처녀인 바리데기가 부모의 허락없이 야합하여 아들을 낳는 비윤리성을 피하기 위하여 부친을 살린 후 부친의 주선으로 혼인하여 아들 십형제를 낳는 내용으로 변용시켰을 것이다.

아울러 한양십본은 불효한 바리데기의 언니들을 징계하여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중들의 선인 선과(善人善果) 악인 악과(惡人惡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핀 점들은 한양십이 오구굿을 하는 과정에서 청중들의 욕구와 관심을 오구풀이의 내용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청중의 반응을 중시하는 세습무굿의 속성 때문에 무가의 변용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주제어: 전남 보성군, 세습무, 무가, 오구굿, 혼맞이, 오구풀이, 바리데기, 한양십

참고문헌

- 강동원(편), 화순무가사설집 굿소리, 민출판사, 1992.
- 김태곤, 한국무가집 1 ~ 4, 집문당, 1992.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 박경신, 동해안 별신굿 무가 1~5, 국학자료원, 1993.
- 박경신, 무가의 작시 원리에 대한 현상론적 연구, 서울대 학위논문, 1991.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이경엽,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1998.
- 이경엽, 셋김굿 무가, 박이정, 2000.
- 이경엽, <오구굿> 무가의 구조와 기능, 한국언어문학 제40집, 1998.
- 이능화, 조선무속고, 백록출판사, 1983.
- 임성래, 나로도의 무가 연구, 순천대 남도문화연구 제2집, 1986.
- 임성래 외3인, 순천지역의 삼설양굿 조사연구, 순천대학논문집 제2집, 1983.
- 임성래, <오구풀이> 화자의 서술태도와 서술 방식, 정한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9.
- 조홍윤, 한국의 무, 정음사, 1983.
- 조홍윤, 한국의 샤마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 홍태한 이경엽,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3, 민속원, 2001.
- 황루시, 무당굿놀이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 황루시 외, 전라도 셋김굿, 열화당, 1992.
- 미르치아 엘리아데, 샤마니즘, 이윤기 옮김, 까치, 1998.

<Abstract>

A research on the MU-KA in Poseong-gun, Chonnam

IM, Song-Lai

This paper researches on the songs of shaman(MU-KA) in Poseong-gun, Chonnam. This paper purposes to collect and to analysis for the songs of hereditary Shaman before they were disappeared. In spite of many songs of shaman be collected, I analysis six kinds of songs on Ogu, a goddess of the heaven.

Han-Yangsim's version was changed the traditional story for showing Ogu has a mighty ability. In that version, when Ogu was thrown by her parents, the crane and the dragon, which are the animals lived in the heaven coming down from the heaven, bring up her. And they help her when she goes to the mountain of Siwang seeking for revival water. The changing story purposes to believe to a audience that she can revive the dead men in Hades.

Han-Yangsim's version was changed the traditional story for reasonable period returned, 9 days later, she came back from the mountain of Siwang. If she came back 9 years later, as a traditional story, she could not revive her dead father. So Han-Yangsim changed to the story reasonable.

Han-Yangsim's version punished Ogu's elder sisters who were transformed into many kinds of diseases for their irreverence for parents. So the theme of Han-Yangsim's version has a encouragement to a kindness and a punishment for a wickedness.

As a result, Han-Yangsim changes the story for a audience made believing Ogu has an ability to revive the dead man in Hades.